

진리의 전 화

부처님 동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 상담 (02) 579-3033

현대 불교

법공양판 방송연예

18~19편 20편

'21세기 자장육사' 기르는 청정강단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는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참배객과 관광객들로 늘 붐빈다. 부산과 경남북지역 불자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들로 다소 번잡하다는 느낌마저 받는다.

그러나 경내의 그런 분위기에 어랑맞지 않는 학인스님들의 독경소리가 영축산의 정기와 어우러져 1천 3백년이 넘는 통도사의 정취를 만들어내고 있다.

안개비가 속진을 씻어 낸 것같은 일요일 이른 아침에 만난 통도사 불교전문강원 강주 현근(玄根)스님은 통도사 강원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한다.

"최근 다른 지방강원들에서는 영어회화, 컴퓨터 등 내전과는 별도로 외전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찾아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포함한 통도사의 강원 전통은 무엇보다도 내전에 한층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긴장감 도는 강의 시간

강주스님은 학인스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전도 사실상 제대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강원 초심자의 경우 하루에 두 세줄, 글자수로 따지면 고작 60자 정도 공부하는게 전부라고 설명한다.

아닌게 아니라 통도사 강원은 경

내일의 아라한들 ⑤

젊은 화승 탐방 통도사 전문강원

(經), 율(律), 논(論) 삼장(三藏)과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 연구를 위해 대교, 사교, 사집, 처문 등 학제별로 나누어져 각 과별 15명 안팎 총 50여명의 학인스님들이 경전공부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새벽 3시에 기상하여 전국의 사찰 중 가장 맑다는 당우들을 나누어 도량석과 예불을 마치고 나면 4시15분, 이때부터 강경과 독경에 들어가 5시50분 아침공양 직전까지 공부에 매진한다. 공양을 마치고는 합동운행에 들어가 아침 7시 상강례까지 크고 작은 도량의 일들을 돌본다. 8

부한다. 이후 저녁예불, 특별활동, 9시10분 취침 준비에 이르기까지 18시간의 빈틈없는 하루일과가 딱딱하게 돌아간다.

특히 철저하게 문답과 논쟁법으로 진행되는 강의 시간에는 그야말로 강장의 밀도가 드높아 눈썹만 납자들의 격정을 향한 열기뿐이다. 각종 운역 등 육체적 노동으로 때로 강의 시간에 졸음을 참지 못해 강사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내전공부의 치밀함은 통도사 강원원이 예로부터 간직하고 있는 소수정예와 내실있는 경전공부의



불보종찰 통도사의 전문강원은 엄격한 규율과 매일 보름 행해지는 포살이 유명하다. 특히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의 커다란 관심은 프리미엄 중의 하나다. 사진은 강원원의 전경.

소수정예 양성·철저한 문답식 강의 전통

종정 월하스님 학인들과 바루공양... 포살·특강도

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교양과목 시간이며 11시20분 점심공양 후 5시20분까지 학제별로 공

전통을 이어받은 데서 비롯된 것. 통도사 불교전문강원은 조계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 월하스님이 주

석하고 있는 곳이라서 어쩌면 다른 강원에 비해 알찬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소창법문'으

로 이름된 종정스님의 '종노릇 하는 법'이란 특강이 년 2회 실시되고 있다. 월하스님은 강원 학인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이름나 있다. 대종과 같이 바루공양할 뿐 아니라 보름마다의 포살도 학인 대종과 같이 해 왔다.

그렇기에 통도사 학인들은 '을'을 그 어느 것보다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특히 종정스님은 강원에서의 공부의 중요성과 함께 예사시

정신과학등 외전수용

(愛善心)을 강조한다.

학인들의 공부나 모든 수행 생활은 통도사 참전자인 자장육사의 이념을 근거로 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강원보다도 엄격한 규율과 보름마다의 포살이 통도사 강원원의 전통이 되어 내려오고 있다.

전통을 변변히 이어온 통도사 강원도 최근에는 천주교 신부를 초빙해 개원행식의 특강을 실시해 타종

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학인스님들의 다양한 학문 위목을 수용하기 위해 얼마전 학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를 벌인 결과 스님들은 '동양철학', '수지철', '비교종교학', '정신과학', '국제경제', '기독교 일반론'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전폭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일본어 강좌를 신설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전연구 분야에 있어 1백년 이상 앞서가는 일본 불교계의 실적을 탐구하고 따라 가야겠다는 생각때문이다.

통도사 강원은 세간의 학문처럼 특정한 기능이나 재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정신적 비전을 제시할수 있는 정인적 수행자를 양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도사=박병근 기자

강맥과 역대강주



1. 월하스님



2. 월하스님



3. 월하스님



4. 월하스님

월하스님 대교과 출신 일제, 6·25 때도 수업

통도사 불교전문강원은 1911년, 지금의 보광정에 강원을 설치 운영하면서 근대적인 강원학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30년부터는 오해연스님이 강주를 맡아 1950년 6·25사변 직전까지 승려인재를 양성하였으며 전쟁중에도 당대의 스님들을 초청해 꾸준히 강맥을 이어왔는데 종정 월하스님도 44년 이곳 대교과를 졸업했다.

즉 통도사 강원은 일제시대를 거치는 기간동안에도 그 강맥이 끊이지 않고 계속돼 온 것이다. 1954년 불교정화운동으로 전국의 사찰이 폐지 혼란스러웠으나 통도사 강원은 56년 초에 월하스님을 강주로 인재양성을 계속하지 않았다.

이후 성능, 월운, 흥법, 호경, 각성, 종법, 지안, 용문, 원산스님등 결속한 강맥들이 강원을 이끌어 와 지금까지 총 39회에 걸쳐 인재를 배출해 왔다.



인터뷰

입승 도전스님

"과거에는 특강형식으로 외래 강사를 초빙해 각종의 외전공부도 해 봤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스님들의 강의방식과 또 학인스님들의 받아들이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통도사 강원은 내전공부에도 시간이 모자라 그것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통도사 강원원의 입승(학생회장) 도전스님은 외전에 관심이 없다고 보다는 내전공부에 한층 더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통도사 강원원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 강원은 세간의 흔하디 흔한 스터디 그룹같은 동아리 모임같은 것도 없다. 이에 대해 도전스님은 "강원의 공부는 속가의 공부방식이 아니라 목적과는 달리 의도된 목적을 승과 다른 반에서 선출되는 학생스님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획득해야 그 지위를 누릴수(당) 있다고 말하는 도전스님은 선출방식이 아주 민주적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입승이든 학생이든 마음공부의 여정에는 모두 똑같은 도반이라며 "학기 중에는 각종의 육체노동과 수업준비 그리고 강의 등으로 그야말로 안비막(安非末)의 나날들"이라고 덧붙였다.

"내전 공부에 더욱 충실 외부접촉·동아리 결성도 자제"

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생각 고쳐먹어 마음먹는 일에 열중할 뿐"이라고 말한다.

최초의 사보였던 <축산보림(1992년)>에서 시작한 지난 7월호로 통권 1백64호 연를 가진 강원 회지 '등불'이 얼마전 총무소로 편집권

세계적인 한국맛!

비락식혜는 세계로 수출됩니다. 미국에서 처음 맛본 요 비락식혜— 지금도 그맛을 잊을수가 없어요! 어릴적 어머니가 해 주시던 식혜— 딱 그맛이지 뭐예요? 그 후론 전 비락식혜만 마셔요! 입안에 착 붙는 요 비락식혜— 요즘, 외국에서도 인기예요!

